(舊)蘇聯의 宗敎와 民族主義

金 一 謙*

- 차 례 -

Ⅰ. 序 論
Ⅱ. 本 論
1. 러시아 2. 우크라이나
3. 리투아니아 4. 이슬람
5. 아르메니아 6. 그루지아
7. 유대교
Ⅲ. 結 論

Ⅰ. 序 論

오늘날 옛날의 소련은 해체되어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소련의 해체는 이어 '독립국가연합'으로 재구성되는 듯 싶더니, 현재는 이것조차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련의 해체는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소련식

*서울대 박사과정

사회주의 체제가 지니는 결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 소련 內의 소수 민족의 분리운동이 소연방의 위기와 더불어 분출되어 나타나고, 소련 해체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오늘날 소련은 민족 분규를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 이들 지역을 살펴보면, 대개 종교적으로도 차이가 나는 지역이다. 예를 들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분규는 심심찮게 메스콤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슬람과 아르메니아 교회라는 종교적 분규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 때, 세계 여론의 집중적 촛점이 되었던, 발트 지역의 국가들은 러시아의 정교회와는 다른 가톨릭 지역으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회교는 회교지역과의 재편입 가능성 때문에 세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소련 지도를 살펴보면, 개개의 (구)소련의 구성 공화국들은 - 오늘날은 독립적 국가가 되어 있지만 - 종교적, 문화적 이질성을 기반으로 경계가 그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제정 러시아가 팽창을 거듭하고, 다수의 민족을 하나의 체제, 국가에 편입하던 때부터 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정 러시아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러시아 정교회를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하여, 판도 내의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주의 소련이 성립한 후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볼세비키들은 민족문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과 더불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짜르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식하고 한 말이긴 하지만, 레닌의 경우에 '민족 자결권'을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혁명 후에는 '러시아 제민족의 권리 선언 **Декларация прав народов России**과 같은 포고를 발하여, 각 민족의 평등과 자결,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1] 이것은 각 소수민족에게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의 소련의 민족 정책은 각 민족의 자율성과 문화를 옹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이후의 소련의 민족 정책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에

---

1) 극동문제연구소, 「소련 · 동유럽 총람」, 1989, p. 553

는 여러 곡절이 있으나, 크게 보아 소련의 민족 정책은 점차 민족적 특성과 문화를 옹호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토착적 민족 문화를 억압하고, 민족주의를 범죄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정책은 한 편으로는 제정 러시아 이래의 전통적 민족 정책의 계승이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주의적 민족 소멸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 소련의 지도자들은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의 경우도 집권 초기에 소련에서의 민족 문제를 부정하고 있었다.[2] 그러나 오늘날 소련의 민족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명확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실패의 한 요인으로서 우리는 종교를 들 수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구)소련 내의 공화국 간의 경계가 민족적 차이에 기반한다고 지적하였지만, 이런 민족적 경계는 또한 대개 종교적 경계이기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소련에서 종교의 소멸 전략은 또한 민족적 소멸 전략과도 일부 일치한다.

사실상 민족적 동일성(identity)은 각 민족의 역사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 과정에서 종교의 동질성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민족의 문화적 전통은 종교와 떨어져서 생각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전통 시대의 문화란 종교와 밀접한, 아니 같은 도상에서 성립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쉽게 종교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었다.

(구)소련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지만[3], 실제로 많은 민족 운동이 종교와 결합한 채로 이루어졌다. 이 점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종교 쪽 입장에서도, 민족 운동과 결합할 내적인 동인이 존재했

---

2) 堀健三, 'ソ連における民族主義の擡頭', 「海外事情」, (1989. 4), pp. 2-3/9-11

3) И. И. Бревник, 'Клерикально экстремистская Активность как форма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кризису 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знания', Кри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Религиозного Модернизма (Киев: Вища Школа, 1978),

다. 이것은 종교의 소멸 전략에 맞서 동지를 구해야 했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종교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소련에서 실제로 종교는 좋은 처지에 있지 못했다.

이 결과 소련에서 70년대 이후로 반체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의 하나로 우리는 종교의 신앙 자유, 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은 여러 반체제적 운동과 결합되었다. 예를 들면, 민주운동이나 민족 운동과의 결합이다. 종교는 이들 운동과의 제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기반을 찾아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종교와 민족주의의 결합이 가능해졌고, 이러한 결합은 바로 소련 민족 정책의 실패의 한 요인이기도 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하여, 종교가 민족주의를 강화, 지지한 것이 오늘날 소련 해체의 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소련 민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Ⅱ. 本 論

(구)소련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샤마니즘, 불교,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등등의 종교들이 포함된다. 이들 종교들이 한 지역에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러시아 정교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가톨릭, 개신교 등등의 종교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지역의 전통적이고 대중적인 종교는 역시 정교회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대개 종교와 민족은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경우에 중앙아시아 지역이 주된 분포지이지만, 단지 이렇게만 분류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서술은 대개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때로는 종교를 중심 분류 항목

으로 설정해 서술해 갈 것이다.

1. 러 시 아

러시아는 988년에 끼예프의 군주였던 블라지미르 스뱌또슬라비치 (Владимир Святославич)에 의해 기독교화 되었다. 이후에 정교회는 러시아 민족성, 민족문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후에 몽고의 침입과 지배 아래에서도 러시아의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시키고, 러시아의 단결과 몽고 퇴치의 힘을 결집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4] 이러한 러시아 교회의 러시아 민족과의 일체성은 비잔틴 제국의 멸망 후 제3의 로마설로 확연히 그 모습이 드러난다. 제3의 로마설은 로마가 이교화되고, 콘스탄틴노플이 이교도인 이슬람인들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에 모스끄바야말로 제3의 로마로서 신의 대행자라는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의식은 러시아의 명예와 기독교 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신성성을 주장하는 것 이었다.[5]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 민족주의와 강한 유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뾰뜨르 대제 이후에 서구화되면서 러시아의 전통문화가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세기에는 러시아 교회의 계시적 진리를 확신하고 이로 돌아가자는 슬라보필(Slavophile)의 조류가 나타난다. 이들은 당시의 전반적인 반종교적 풍토에서 — 공산주의자들만 반종교적인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인텔리겐차 전반에 걸친 풍토였다 —

---

4) Geoffrey Hosking, *A History of the Soviet Union*, 「소련사」, 김영석 역 (홍익사, 1988), p. 25

5) Aristeides Papadnkis, 'The Historical Tradition of Church-State Relations under Orthodoxy', *Eastern Christianity and Politics in the Twentieth Century*, ed. by Pedro Ramet (Durham and London : Duke Uni. Press, 1988), p. 52

유일하게 러시아 정교회에 호의적이었다.[6]

이들은 혁명 후, 1960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은 네오-슬라보필(Neo-Slavophil)이라고 불리는데, 처음에 러시아 문화의 유적을 보전하자는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이것은 후르시초프 등장 이후에 스탈린 비판으로 야기된 정신적 공백 때문에, 이것을 메우기 위해, 혁명 전의 근원을 추구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의 보존을 위한 전러시아회, All-Russian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Historical Monuments'가 구성되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을 포함한 러시아의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자는 운동으로서, 러시아의 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지키자는 운동이었고, 처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지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좋은 시절이 오기까지 보전하자는 운동임이 드러나 공격당하게 된다.[7]

이들 운동의 참가자들이 애초부터 정교회 신자는 아니었지만, 이들이 대개 러시아 정교회로 귀의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들 신봉자들의 출신도 대개는 잘 교육된 공산주의 가정에서 나왔고, 과거에는 확고한 스탈린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은 정교회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가에 대한 감시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

이들은 19세기의 슬라보필이 '서구화'에 대해 러시아 문화와 가치를 파괴하고, 유물론적이고, 세속적이며, 비역사적, 즉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한다는 면에서 비판하였듯이, 마찬가지로 서구 사상인 마르크스주의를 유물론적이고 공리주의적인 학파의 막다른 골목으로, 자유주의적 전통의 막다

---

6) James Thrower, *Marxist-Leninist' Scientific Atheism and the Study of Religion and Atheism in the USSR* (Berlin, New York, Amsterdam : Monton Publisher, 1983), pp. 90-95

7) Dimitry Pospielovsky, 'The Neo-Slavophile Trend and its Relation to the Contemporary Religious Revival in the USSR',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viet and East European Politics*, ed. by Pedro Ramet (Duke Uni. Press, 1984), p. 49

8) *Ibid.*, p. 42

른 골목으로 보고 거부한다.[9]

이들의 현실에 대한 전망은 대개 비관적이다. 이들은 러시아가 비도덕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출산율의 저하, 알콜 중독의 확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이 서구에서 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오직 기독교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조류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극단적인 러시아 민족주의 내지는 제국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솔제니친의 경우에도 공산주의적 정책 -- 무신론, 집산화, 국제문제에 과잉관여 등 -- 이 러시아 문화를 파괴했다고 반대하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大任을 맡은 가운데, 권위주의적 국가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0]

또 빠마찌(Память)라는 조직의 경우에는 반유태주의적 사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극단적 국수주의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1987년 5월에 모스끄바에서 공공연한 데모를 벌이고, 당시 모스끄바시 당위원회의 제1서기였던 옐친과 회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스끄바, 레닌그라드, 스베르들로프스끄, 노보시비르스끄 등지에서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수천명의 회원이 있다 (87년 봄). 이들은 시오니스트의 프리메이슨이 모든 곳에 그물을 치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뿐 아니라, 이들은 외국인 일반에 대해서 반대하며, 락 음악과 같은 것에도 반대한다. 그리고 무신론을 반대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정교회 신자가 많은 것이다.[11]

이러한 운동이 소비에트 체제의 민족 융합 정책을 해치고, 결국 소비에트 체제의 위기 · 붕괴와 더불어, 그것을 러시아 내부에서 고착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러시아 정교회가 이러한 경향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소비에트 정책을

---

9) *Ibid.*, p. 43

10) Geoffrey Hosking, *op. cit.*, p. 416

11) 하까마다 시게끼, 「소련의 이해 : 오해를 푸는 25가지 시각」, 정성환 역 (열린책들, 1990), pp. 27-32

비판하고, 무신론적 국가 원리를 부정하지만, 아울러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이러한 인권 보호 활동이 주로 신자의 인권과 권리의 보호에 관심을 쏟고 있긴 하지만, 다른 종교의 신자나 일반 양심수의 경우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정교회의 저명한 반체제 신부인 야쿠닌(Yakunin Gleb)의 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1975년에 WCC에 소련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보냈고, 1976년에는 '소련 신도 권리 보호를 위한 기독교 위원회, Christian Committee for the Defense of Believers' Right in the USSR'를 창립하여, 소련에서의 신도들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 보급하며, 시민적 권리를 침해 당한 신도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신도 권리의 옹호와 종교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이들은 다른 종교 신도들의 권리도 옹호하였고, 이러한 결과 종교간의 연합 투쟁도 이루어졌다. 1977년에는 WCC에 종교 신앙의 자유와 감옥에 갇힌 양심수를 보호할 것을 호소했다. 또한 이들은 헬싱키 감시 모임의 지도자인 유리 오를로프(Yury Orlov)의 체포에 항의하였으며, 1977년 11월에는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과의 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소련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인권침해의 사례를 조사하고, 양심범의 보호를 주장했다.[12]

1987년에 야쿠닌 신부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공개 서신을 보내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호소하고, 신앙의 자유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률적 제한을 철폐하며, 무신론의 선전의 자유가 허용되듯이 신앙을 선전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양심범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그라스노스트(**гласность**), 민주화에 합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정교회가 복권되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옐친의 대통령 취임식에 알렉시이 총대주교가 참석했는가 하면, 쿠데타 기간 중에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이 정교회 사제가 주관하는 가운데 거행되었다.

---

12) Ludmilla Alexeyeva, *Soviet Dissent: Contemporary Movements for National, Religious, and Human Rights* (Connecticut :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5), p. 255

이러한 것으로 판단해 보건데, 러시아 정교회의 장래를 쉽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러시아의 민족적 성향이 강해지면 질수록, 러시아 정교 회의 입지도 그만큼 강해지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러시아 민족성의 강화이면서, 제국주의 내지는 세계주의에 대한 후퇴인 것이다.

2.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원래 정교회가 지배적인 곳이다. 우크라이나 민족이 러시아 민족과 원래 같은 혈족이고, 러시아의 최초의 기독교화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와는 다른 역사를 갖게 된다. 이곳은 14세기에 리투아니아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 뒤에 다시 폴란드로 지배권이 넘어갔다.

폴란드는 이 지역의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쉽지 않아, 동방 정교회적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황을 모든 기독교인의 최고 우두머리로 인정하는 안이 제기되었다. 이 안이 1596년에 브레스트 리토프스크(Brest Litovsk)에서 개최된 정교회 협의회(Council of the Orthodox Church)에서 가결되었다. 이 결과 기존의 정교회는 불법화되고, 사제와 주교는 추방되고, 교회는 폐쇄되는 등의 많은 억압을 받게 된다.[13]

이러한 폴란드와 가톨릭의 압제에 저항해서 1648년에 보그단 흐멜리니쯔끼(Богдан Хмельницкий)의 봉기가 일어났다. 이들의 요청으로 러시아가 개입하여, 결국 우크라이나가 반분되어, 러시아 지역은 정교회로, 서부의 폴란드 지역은 전례는 정교회 식이나 교황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는 동방전례가톨릭(Uniate)로 된다.[14]

---

13) Nicolas Zernov, *Eastern Christendom*, (London : Shenval Press, 1961), pp. 146-49

14) С Н Сыров,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Издательство《Русский язык》 1975), 「러시아의 역사」, 기연수 역 (동아일보사, 1989), pp. 128-30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민족주의 운동이 서구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 당시에 동부 우크라이나에서 정교회는 민족주의에 별다른 역할을 해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부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강렬한 민족주의적 열망과 운동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비잔틴 의례 가톨릭의 사제가 민족주의에 상당한 역할을 해내게 된다. 그러나 이 당시의 민족주의는 친러시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15]

1905년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운동이 활성화되게 된다. 이런 운동의 하나로 정교회에 있어서도, '자주 우크라이나 정교회(Autocephalous Ukrainian Orthodox Church)'가 성립되었다. 기존의 정교회는 봉건적이고, 짜르 러시아를 지지하며, 우크라이나의 민족성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 때문에 '자주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3가지의 지향을 제시하였다. 즉 자주(autocephalous), 우크라이나화(Ukrainianization), 화해(conciliarism)이다. 이러한 지향 자체는 이미 반러시아적 경향과 민족주의를 드러내고 있다.[16]

1920년에 볼세비키는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게 된다. 이 뒤에 '자주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러시아 교회 Russian Church' 사이에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다. 여기서 후자는 모스끄바가 임명한 대주교가 전 교회조직을 장악하고 대부분의 보수적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반해 전자는 평신도가 지배하는 회의에서 민족의식을 지닌 신도들을 민족언어와 의례, 민족독립에 대한 메시지와 교회의 민주화, 사회적 급진주의로 사로잡았다.[17]

여기에 대해서 모스끄바의 정교회는 이들의 해체를 명하였고, 여기에 대해 이들은 모스끄바에 독립된 실질적으로 자주적인 교회 조직을 창건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세력을 상당히 확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단

---

15) Vasyl Marcus, 'Religion and Nationalism in Ukraine', *Eastern Christianity and Politics in the Thentieth Century, op. cit.*, p. 61

16) Bohdan R. Bociurkiw, 'The Ukrainian Autocephalous Orthodox Church', *Ibid.*, p. 310

17) *Ibid.*, p. 311

순히 모스끄바의 권위적, 군주적 교회에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 감정을 고양시켰다. 이 때문에 여기에 다른 민족운동의 잔존 세력이 가담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볼세비키는 자주교회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 그리고 이 결과 결국 자주교회는 완전 해체되게 되었다.

이러한 '자주 우크라이나 교회'의 해체는 결국 이들의 민족주의적, 반소적 성향에 기인하였다. 이것은 1930년 1월에 끼예프에서 소집된 특별 회의(sobor)에서 자주교회의 해체를 강제적으로 결의하면서, 작성된 문서에서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자주교회를 반혁명적이고, 쇼비니즘적이라고 비난하면서,

>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자주 정교회를 우크라이나에서 반혁명의 동의어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가 페트릴리트(Petliurite : 우크라이나 독립 투사)적 독립의 상징이 되고, 우크라이나화가 민족적 적대감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화해가 지목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한 악의적 선전수단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논리적인 것이다.[18]

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서부 우크라이나에서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서부 우크라이나는 19세기에 접어들어서 강한 민족주의적 운동을 펼쳐 나간다. 그러나 소비에트 점령과 더불어 완전히 가톨릭은 궤멸되었다. 이러한 동방의례 가톨릭의 완전한 파괴는 전적으로 민족주의적 이유 때문이었다. 이것은 예를 들어 1982년의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인 올렉산드르 깝또(Oleksandr Kapto)가 이야기했던 바이다. 그는 "외국의 교권적 민족주의적 선전은 우크라이나에서 비잔틴 의례 가톨릭을 재생함을 자기 임무로 삼아 그것을 종교적-민족주의적 대립의 가능성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또 "교권주의적 이데올로그들은 종교적인 모든 것을 민족적인 것으로 묘사하려 하고, 무신론적인 양육 과정을 '인민의 탈민족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 한다. 이것은 또한 모스끄바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였고,

---

18) Dmytro Ihnatiuk, *Ukrainska avatokefalna tserkva i Soiuz Vyzvolennia Ukrainy* (우크라이나 자주 교회와 우크라이나나 해방 동맹) (Kharkiv-Kiev : D. V. U., 1930), pp. 23-31, in ibid., p. 314에서 재인용

현재 보수파의 거두인 이고르 리가초프(Egor Ligachev)의 이야기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는 부르조아적 민족주의자들이 종교적 외피로 변장한다라고 주장하고, 그 예로 비잔틴 의례 가톨릭의 사제들을 들고 있다.[19] 그리고 1987년에는 정교회의 대주교 피라레트 (metropolitan Filaret)는 우크라이나 가톨릭 문제는 종교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라고 말하고 있고, 종무국(Council for Religious Affairs)의 전임 의장이었던 하르체프(Kharchev)는 1987년에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의 수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합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20]

이와 같은 소비에트 정권의 인식으로 우크라이나의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러나 가톨릭은 지하에서 계속 존재하였고, 복권의 노력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것은 1965년에 가톨릭 합법화 탄원운동으로 체포된 89명 가운데, 10명이 사제였고,[21] 1980년에는 우크라이나 민족운동 참가자 중에 90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78명이 종교와 유관하였고, 이중의 14명은 가톨릭 신자였으며, 2명이 정교회 신자였다.[22] 1980년에는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의 생명으로부터, From the Life of the Ukrainian Catholic Church', 1982년에는 '종교신도와 교회의 권리 보장, Defense of Rights of Religious Believers and the Church', 1984년에는 '우크라이나 가톨릭 교회 연보, Chronicle of the Catholic Church in Ukraine' 등의 사미즈다트가 출간되었고, 이들은 가톨릭의 합법화를 위해서 노력하였다. 또 서우크라이나가 독·소 조약에 따라 소련에 합병된지 50주년이 되는, 1989년 9월17일 우크라이나의 리보프에서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톨릭을 합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가톨릭을 강제로 정교회에 결합시킨데 대해서 비난하는 신부의 강연도 있었다.[23]

---

19) Roman Solchanyk & Ivan Hvat, 'The Catholic Church in the Soviet Union', *Catholicism and Politics in Communist Societies*, ed. by Pedro Ramet (Durham and London : Duke Uni. Press, 1990), pp. 55-56

20) Vasyl Marcus, *op. cit.*, p. 64

21) *Ibid.*, p. 73

22) *Ibid.*, p. 51

23) 한국일보, 1989년 9월 19일

이 결과 1988년, 바티칸 국가 서기인 아고스티노 추기경 까사롤리 (Agostino Cardinal Casaroli)와 고르바초프의 면담이 이루어져, 소련과 가톨릭 관계의 전기가 마련되었고, 1989년에 정부는 우크라니아 가톨릭을 합법화시킨다.

3.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에서 민족주의 운동은 가톨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원래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제들은 친폴란드적 성향이 있었고, 이 때문에 리투아니아의 좌파 내지 자유파는 가톨릭이 오히려 민족 운동에 유해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가톨릭은 적어도 1945년 이전에는 상당히 교권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 결과 1945년 당시에는 가톨릭과 반교권주의자들 사이의 대립이 있었다.[24]

이 때문에 리투아니아에서는 민족운동에 있어서도 가톨릭과 반교권주의적 파의 두개의 운동 조직이 존재했다. 그러나 여기서 후자의 운동 조직은 소비에트 점령 초기에 게릴라 활동을 하다가 궤멸되었고, 이 결과 실제적으로 운동의 중추 조직으로 가톨릭이 구심점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또한 가톨릭이 전통적으로 반공적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사제들이 대량으로 추방되는 등의 탄압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소비에트의 탄압하에 교권주의적 태도가 정화되어 교회의 도덕적 권위가 강화되었다는 것 등에 원인이 있었다.[25]

리투아니아에서 민족운동은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본격화된다. 이 때 이후로 다양한 사미즈다트가 출간되는데, 이들 중의 다수가 가톨릭 계통의 저널이고, 이들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고, 인권의 보호를 주장하

---

24) Kstutis K. Girnius, 'Nationalism and Catholic Church in Lithuania',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viet and East European Politics, op. cit.*, pp. 86-87

25) *Ibid.*, pp. 87-88

고,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70년대에 접어들면서 빨치산에 참가했던 이들이나 추방되었던 사제들이 돌아오면서, 가톨릭 운동에 참여하게 되어 운동이 활성화되었다. 1972년 5월 18-19일에는 깔란타(Kalanta)라는 학생의 분신 사건이 일어나, 영웅적 존재가 되는가 하면, 운동경기 뒤에 반러시아 데모가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운동 경기 뒤에 일어나는 자연 발생적 데모는 10,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러시아인은 가라"라거나 "리투아니아에 자유를"이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26]

리투아니아에서는 가톨릭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이들은 리투아니아인의 인구가 줄고, 알콜 중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알콜과 출산에 대한 가톨릭적 견해가 리투아니아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비가톨릭인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는 것도 한 몫한다고 생각한다.[27]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들은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데, 예를 들어, 70년 9월에 안타나스 세스케비치우스(Antanas Seskevicius) 신부가 어린이와 교리 문답을 하다가 체포되었을 때, 사제 100명의 탄원이 이루어졌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72년에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어긴 비망록을 브레즈네프에게 보내고, 교황과 국제연합에도 탄원하였다.[28] '신도권리 보호를 위한 가톨릭 위원회'가 70년대 후반에 성립되어 종교법에 반대하고, 개정을 추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지도자들이 체포, 투옥되게 된다.[29]

이러한 상황은 물론 80년대 들어오면서 호전되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는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리투아니아 방문 의사를 거듭 표명하였지만,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황은 87년의 리투아니아 기독교화의 6백주년 기념식과 88년의 끼예프

---

26) Ludmilla Alexeyeva, *op. cit.*, pp. 65-66
27) Kstutis K. Girnius, *op. cit.*, pp. 89-99
28) Ludmilla Alexeyeva, *op. cit.*, pp. 73-74
29) Roman Solchanyk & Ivan Hvat, *op. cit.*, pp. 67-68

에 기독교가 소개된지 1000년 기념식에 참가할 의사를 밝혔었다.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정교회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부 측에서 반대하였기 때문이었다. 정교회는 우크라이나의 가톨릭 문제 때문에 반대하였다. 정부에서는 교황청이 당시의 소련 영토에 포함된 발트3국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소비에트 정부의 수도인 모스끄바를 방문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가톨릭에 대한 교황청의 태도에도 원인이 있었다.[30] 이러한 교황 방문이 지니는 의미는 결국 리투아니아의 독립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서 해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변화되기 시작하여, 87년에는 리투아니아 당과 정부는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교회에 대한 기존의 과오를 인정하였고, 이후에 투옥되었던 교회지도자들이 석방되고, 주교들의 로마 방문이 허용되었다.[31]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리투아니아에서 가톨릭은 소연방의 해체를 예고하는 전주적 민족 운동의 주요 진원지였다. 그리고 발트3국은 소연방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독립하였던 것이다.

4. 이 슬 람

소련에서 회교도들이 독립적인 공화국을 이루고 있는 지역은 우즈베크, 투르크멘, 타지크, 카자흐, 키르키스의 중앙아시아 지역과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그리고 러시아 공화국 내부의 타타르와 바쉬키르 자치공화국이 있다. 인구로는 전체 6000만 정도를 헤아린다. 이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중앙아시아의 5개국으로, `인구 밀도도 가장 많을 뿐 아니라, 미국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을 지니고 있다. 또 타타르인들의 거주지, 특

30) *Ibid.*, pp. 70-71
31) *Ibid.*, p. 86

히 볼가지역의 타타르인들은 한 때, 무슬림 혁명과 개혁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 독립 여부를 묻는 투표를 통해 독립이 지지받고 있는 상태며, 이 문제로 러시아와의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700만의 인구로 소련내 이슬람 교도들 중에는 유일하게 시아파이다.[32]

소련의 민족정책에 있어서, 이들 지역의 결집력이 주로 이슬람 공동체로서 존재했다는 점에서,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중국 등지에서도 그렇지만, 이들 지역의 종교적 결집력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또 이 지역은 주변의 이슬람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 때문에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들 지역의 경제적 낙후, 유목 생활과 같은 경제구조로 인해 혁명 후의 초기 외에는 별로 조직적 저항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다. 혁명 초기에는 보통 바스마치 운동이라고 알려진 반소, 민족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33] 그러나 이것이 1920년대에 평정되고 난 뒤에는, 별로 조직적 저항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부의 반종교 정책으로 신앙이 지하로 숨어들었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타리캇트(tariqat)라는 이름의 비밀결사 조직이다.[34]

초기의 소비에트 정부의 억압 정책과, 이것에대한 저항운동 이후에, 이 지역의 정책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억압과 유화의 국면을 번갈아 하였다. 그러나 1978년의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의 침입 후 관용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 그리하여 '이슬람은 개인적 양심의 문제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이것은 재외의 무슬림에 대한 배려와, 지나친 반종교 선전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 하였기 때문이었다.[35] 그러나 이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 침입 이후로 이러한 측면이

---

32) James Critchlow, 'Islam and Nationalism in Soviet Central Asia', *Religion and Nationalism in Soviet and East European Politics*, *op. cit.*, pp. 104-105

33) Geoffrey Hosking, *op. cit.*, pp. 115-118

34) *Ibid.*, p. 241

35) James Critchlow, *op. cit.*, p. 107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을 보면, 전자에 대한 고려가 보다 강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 프라브다는 무슬림의 헌법에 따른 자유와 권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1982년 「꼬뮤니스트」에는 이슬람에 정의, 평등, 착취의 폐기에 대한 호소가 있다라는 주장을 게재하기도 한다.[36]

그러나 이들 중앙아시아 지역과 달리 크리미아 타타르인들의 민족운동은 소련 내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차대전 당시에 마치 소련에서의 한인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크, 카자흐스탄, 투르크멘, 키리키즈 등으로 강제 이주되었다. 이들은 스탈린 사후에 지속적으로 귀향을 요청하는 운동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은 계속 탄압받았다. 그러나 1967년 귀향이 허용되었으나 귀향은 여러가지 제한을 받았으며, 크리미아로 돌아간 타타르인들도 여러 규제와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은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에도 지속되어 모스끄바에서 데모를 벌이기도 하였던 것이다.[37]

현재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으로 독립국가연합의 향로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은 이란과 터어키와의 연대 가능성 때문에 美·蘇의 세계 전략상에 있어 관심지역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제공화국들도 모두 이란과 터어키와의 경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이후에 이들의 행로에 따라서는 이슬람권의 세력 형성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이들 지역이 소련의 붕괴 후 급속하게 이슬람의 세력이 표면화, 증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이 독립국가연합(CIS)의 탈퇴를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 지역의 아르메니아와의 분쟁에서 러시아가 은밀하게 아르메니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38] 아르메니아와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같은 기독교 국가이고, 아르메니아의 자위가 러시아의 후원 하에 지켜졌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감안하면, 이러한 아제르바이잔의 주장이 전

---

36) *Ibid.*, pp. 106-109

37) Ludmilla Alexeyeva, *op. cit.*, pp. 137-55

38) 동아일보, 1992년 10월 8일, 4면

혀 무근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하고, 아울러 이후의 이슬람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諸國과 아제르바이잔은 1930년에 러시아의 강요로 쓰고 있는 키릴 문자를 버릴 계획이다. 타지크의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쓰고 있는 문자로 바꿀 계획이고, 이에 사우디는 자국어로 된 코란을 대량으로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중앙아시아 4개 공화국은 터어키 식의 라틴 문자로 바꿀 계획이고 여기에 터어키는 라틴 문자로 된 타이프라이터를 보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역시 터어키 식의 라틴 문자로 바꾸기로 했다.

이들 중앙아시아의 제민족들은 모두 터어키계 인종들이고 언어적으로도 가깝다. 따라서 범터어키주의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점을 서방에서는 염려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이 이란의 세력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이 터어키 계통의 인종이고, 이란 식의 과격한 회교근본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연대 가능성의 폭은 좁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 아프카니스탄도 이 지역에 관여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지역의 반소적 성향의 사람들은 아프카니스탄의 반소 무자헤딘에 동조한다. 아프칸의 160만 우즈베크인 중 아자드 베그라는 지도자는 중앙아시아의 자신들 지지 세력에게 무기를 공급해 왔는데, 이것은 아프간 북부, 우즈베크, 투르크멘의 터어키인을 포함해 대 회교 독립국을 세우려는 목적에서 이다. 중국 또한 신장 지역의 회교도들로 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서방,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39]

그러나 이들 지역이 회교 지역이긴 하지만, 소비에트 통치 기간 동안에 상당히 세속화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교에 기반한 세력의 재편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터어키와 이란이 경쟁적으로 이들 지역과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최근에 타지크의 민족적 공산주의자인 나비제프(Nabijew)가 축출되었는데, 그의 축출에 이슬람 당파가 주도적 역할을 행하였다. 이 이슬

39) *NEWSWEEK* (한국어판), 1992. 2. 5, pp. 13-21

람 당과의 '재건 Wiedergeburt'과 근본주의 계통의 '인민전선 Volksfront' 이다. 이들은 상당히 권력에 접근해 있어 이슬람 공화국의 성립까지도 가능할지 모른다. 또한 타지크가 주위의 아프카니스탄, 파키스탄 등의 회교 지역과 인접해있어, 범회교 세력의 결집 가능성 까지도 예견된다.[40] 이러한 최근의 사태까지 고려하면 이 지역의 향방에 대해서 쉽게 예단하기는 힘든 것 같다.

5.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는 單性說을 채택하고 있고, 이미 서기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그루지아와 유사하게 이슬람 세력에 둘러싸여 자신들의 민족적 독립을 유지해야 했으며, 이 때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표징이 바로 종교였다. 330년 경에 이들은 성서를 아르메니아어로 번역하였고, 이것은 자신들의 독특한 알파벳을 만드는 작업과 병행되었던 것이다.[41] 이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문화는 아르메니아 교회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민족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든 투쟁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1860년대 이래 터어키의 대규모 학살이 이루어졌고, 1915년에서 20년 사이에는 200만의 아르메니아인이 학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같은 기독교 국가인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다.[42]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아르메니아의 이러한 민족적 비극은 바로 이들이 기독교, 비이슬람 교도라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주변의 터어키, 이란, 아제르바이잔과 복잡한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다.

---

40) *Der Spiegel*. 1992. Nr. 37, p. 184-185

41) Nicolas Zernov, *op. cit.*, pp. 72-73

42) Claire Seda Mouradian, 'The Armenian Apostolic Church', *Eastern Christianity and Politics in the Twentieth Century*, *op. cit.*, pp. 354-55

요즘의 신문지상을 메우고 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사이의 갈등은 이미 이들 사이의 종교적 차별성이 그 기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아르메니아인이 다소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이 아제르바이잔에 귀속된 것이 그 원인이다. 이 결과 이 두 민족의 역사적 적대감이 영토 문제를 중심으로 첨예화되었던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지역의 갈등에 이란, 터어키, 서방 제국과 러시아가 세력 확장의 장으로 생각하여 관여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 지역이 이슬람 세력의 판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방 제국은 이들 지역을 바라볼 때, 이란 회교 혁명의 수출을 극구 염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아르메니아-기독교, 아제르바이잔-회교라는 등식을 놓고 싸우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두 지역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인식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대통령인 페트로시안(Petrossian, Levon Ter)는 나고르, 카라바흐 문제가 민족적,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로 말하고 있다.[43]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인 므탈리보프(Moutalibov, Ayaz)는 이란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서방적인 길을 걸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44]

6. 그루지아

그루지아의 경우에 이들 지역에 기독교가 유입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어서 이미 330년 경에 기독교화 되었다. 이들은 자주교회(Autocephalous church)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것은 이들이 이슬람 세력에 둘러쌓여 있는 조건에서 민족성의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43) *Le Monde*, 1992. 2. 26, 4면
44) *Ibid.*, 1992. 2. 25, 3면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지위는 러시아에 합병된 기간인 1801년에서 1917년 사이에는 예외였다. 이 당시에 그루지아는 터어키와 페르시아의 압박으로 인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러시아와의 합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결과 그루지아 교회도 그 자주성을 상실하고, 러시아 교회의 위계 체제에 편입되게 되었던 것이다.[45]

그러나 1917년 3월에는 그루지아 교회는 그 자주적 지위를 다시 선언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물론 러시아 정교회의 반대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그루지아의 민족 독립과 상당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1918년 5월에 그루지아 민주주의 공화국의 선포가 1921년 소비에트 적군의 침입으로 붕괴되고 난 뒤, 그루지아 교회는 다른 지역의 종교와 마찬가지의 억압 조치를 당하게 되고, 이 때문에 그루지아 교회의 세력도 상당한 정도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46]

그러나 그루지아 교회는 소비에트 치하에서도 계속 그 자주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범정교회 회의나 WCC 등에 여러명의 대표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47]

그루지아에서도 다른 지역의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충성을 바침으로써 교회의 존속이 가능했는데, 이것은 신자들의 반발을 사게 된다.

그러다가 1960년 이후에 그루지아의 민족 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이 때에 종교 운동도 활성화되게 된다. 왜냐하면, 종교에서 그루지아의 민족적 정체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그루지아에서의 민족운동은 주로 대학생들과 인텔리 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들은 교회 참석을 통해 그 불만을 표현하곤 했다. 이들은 그루지아적인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성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정교회 역시 이들에게는 그루지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특히 부활절과 같은 때에는 상당히 복적거

---

45) Eile Melia, 'The Georgian Orthodox Church', *Aspects of Religion in the Soviet Union*, ed. by Richard H. Marshall, (Chicago Uni, Press, 1971), p. 226

46) C. J. Peters, 'The Georgian Orthodox Church', *Eastern Christianity and Politics in the Twentieth Century*, *op. cit.*, pp. 289-945

47) Eile Melia, *op. cit.*, pp. 234-35

리게 되었다. 또한 총대주교를 비롯한 교회 상층부도 애국심을 고취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48]

1981년 4월1일에 므트스케타(Mtskheta)에서 데모가 있었다. 이 곳은 원래 트빌리시로 수도가 옮기기 전 고대 그루지아의 수도였고 그루지아 교회의 수장이 므트스케타-트빌리시의 대주교, 또는 전 그루지아의 총대주교라고 불리고 있듯이 종교적으로도 독특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곳은 강으로 트빌리시와 경계지워져 있는데, 이곳으로 가는 길을 경찰이 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길을 우회하거나 뗏목으로 건너거나 하는 방법으로 므트스케타에 교회에 모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는다. 그런데 이 교회의 두 명의 사제가 이들에게 설교를 하였는데, 먼저 한 사제는 투쟁을 그만 두고 당국에 순응하라고 하였고, 나중에 사제는 그루지아의 영광스러운 과거와 놀라운 전통에 대해서 상기시켰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와서 총대주교에게 먼저 설교한 사람을 면직시킬 것을 탄원하기로 하고 트빌리시로 갔던 것이다. 또 1981년 10월에 다시 2000명의 사람들이 므트스케타 교회에 모여 학교에서 그루지아어 사용빈도가 주는 것에 항의 하였다.[49]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와 민족주의는 점차 융합되어 나갔다. 이것을 그루지아 공산당에서도 알고 경계하게 되었다. 그루지아 교회와 그루지아 민족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경향도 증가되어 갔던 것이다. 민족주의자인 감사흐르디아 (Gamsachurdia, Swiad)는 지방 신문에 공개적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그루지아 교회에 대한 투쟁은 그루지아 언어와 문화에 대한 투쟁이다. … 무신론 선전이 오늘날 바로 그루지아라는 관념과 싸우는 것에서 그것은 명확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1978년 2월의 한 삐라에서는 민족정신의 버팀목으로서 역사적 유물과 언어, 그루지아 교회의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일리아 2세(Ilia Ⅱ)는 1980년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기독교가 없이는 우리는 특수한(distinctive) 민족일 수 없으며, 우리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루지아 언어의 보전에 대해

48) Ludmilla Alexeyeva, *op. cit.*, p. 108
49) *Ibid.*, p. 118

서도 강조했다.[50]

근래에 그루지아 민족운동의 기수였던 감사흐르디아는 압도적 지지로 그루지아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반군에 의해 축출당했다. 이것은 마치 옐친이 받는 비난처럼 독재와 압제라는 비난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뒤를 이어 전 소련 외무장관이었던 세바르드나제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이 이전에 그루지아로 돌아가서, 최초로 만난 이는 그루지아 교회의 총대주교인 일리아 2세(Ilia Ⅱ)였다. 일리아 2세는 이 때, 축복을 내려 주었다.[51]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이 된 세바르드나제의 주도로 그루지아의 압바스 지역의 무슬림들과의 분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다.

7. 유 대 교

유대인들은 소련 내에서도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이 2등 시민의 위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들은 혁명전 제정 러시아에서도 차별 정책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혁명 후에는 이들의 지위가 일정 정도 개선되었다. 이것은 유대인 사회주의 조직이 혁명에 가담하여 활동하였었고, 이들에 의해 유대인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유대인에 의한 유대인 정책이란 유대인의 특수성에서 기인하였다. 이들은 종교와 민족성이 쉽게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공격이 유대 민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52]

그러나 4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태도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건국(1948년)과 관계가 있다. 48년 11월에 소련 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유대인 조직인 「반파시스트 위원회, Anti-Fascist Communittee」와 유일한 이디쉬어 잡지인 「아이니케이트, *Ainikeit*」가 폐지되었다. 이것

---

50) C. J. Peters, *op. cit.*, pp. 305-306

51) *L'Express*, 1992. 3. 27, p. 28

52) Zvi Gitelman, 'The Communist Party and Soviet Jewry: The Early Years', *Aspects of Religion in the Soviet Union*, *op. cit.*, pp. 323-324

은 유대인 차별의 전주곡이었던 셈이다.[53]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에 차별 정책은 이미 1932년에 '국내여행 허가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미 그 단초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의 제5항은 모든 소수민족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대인 차별 정책에 이용되었던 것이다. 유대인은 대부분 다른 민족에 비해서 고등교육의 비율이 높았고, 전문직에 진출 비율도 높았다. 여기서 제5항이 악용되어, 유대인이 보다 책임있는 자리에 올라 가기가 어려워졌으며, 이것은 단적인 예를 들어, 1947년에부터 모스끄바 대학에 유대인의 입학과 관련하여 엄격한 쿼터제가 시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54] 이러한 차별 정책은 광범위하게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이 결과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대인들의 이민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다. 1970년에는 12명의 사람이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납치하였다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의 사미즈다트가 출간되는데, 이들은 「엑소더스, *Exodus*」(1970), 「엑소더스 헤럴드, *Exodus Herald*」(1971), 「엑소더스 백서, *White Book Exodus*」(1972), 「소련의 유대인, *Jews in the USSR*」(1972)이 출간되었다.[55]

이후로 무수한 이민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전반적 제한 조치로 해서 이민 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1969년에 3명의 유대인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친척들과 합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유대인으로서 기르기 위해서 이민을 원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56]

---

53) Joshua Rothenberg, 'The Jewish Religion in the Soviet Union since World War Ⅱ', *Aspects of Religion in the Soviet Union, op. cit.*, p. 343

54) Goffrey Hosking, *op. cit.*, pp. 255-57

55) Ludmilla Alexeyeva, *op. cit.*, pp. 181-84

56) *Ibid.*, p. 186

Ⅲ. 結　　論

우리는 지금까지 (구)소련의 종교와 민족주의가 결합하여 소련의 통합에 대해서 반작용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소련의 민족주의가 소련의 해체를 가져왔다고 한다면, 종교의 민족주의와의 결합은 소련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다른 요인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러시아의 정교회와 중앙아시아 등지의 이슬람, 리투아니아의 가톨릭, 그루지아의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우크라이나의 정교회와 가톨릭, 유대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종교와 민족주의의 결합은 기본적으로 소련이 민족정책에 실패한 데에 원인이 있다. 소련은 자국 내의 제민족의 차별성이 사회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자연히 소멸되어 나가는 추세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억압정책을 폄으로써, 소수민족의 반감을 샀다. 더군다나 이러한 정책이 러시아의 쇼비니즘적 헤게모니 하에 주도되었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에게는 러시아의 제국주의적이고, 착취적인 정책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종교는 사회주의 소련에 있어서 민족과 마찬가지로 사멸의 대상이었는데, 이것이 종교의 입장에서는 억압으로 생각되었다. 이 결과 종교는 민족주의와 결합하고, 이것을 강화,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를 계기로 각 민족의 자기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해체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